

日本の 韓國侵略政策

—日本國粹主義團體의 侵略行跡—

趙 恒 來

(淑大 韓國史學科 教授)

Japanese Invasion Policy on Korea

—Japanese Ultrationalistic Group, The Invasion Footmarks of
“the Genyōsha (玄洋社)”—

Hang Rae Cho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Japanese invasions on Korea and the Chinese Continent were streed not only by the 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r the military, but also by the ultrationalistic groups, such as The Kokuryukai(黑龍會: Black Dragon Society) and a number of similar groups including The Genyosha.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have distorted various facts about Japanese ultrationalistic groups' invasion footmarks connected with the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Moreover, there have been quite a few research results which prov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nstigated its people to raise invasion spirit against other countries. a reflection In the light of above there remains a task to study them from the standpoint of those who had been invaded and also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Korea. Through such points of view, We will study in this paper on the background built by Japanese ultrationalistic groups and the process and the theory of expanding national power during the invasion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from 1881 to 1910, and also study the invasion footmarks on Korea among those on other countries.

I. 序 論

日帝의 對韓侵略時代史(1876~1945)에 관한 研究는 抗日獨立運動史의 연구와 함께 이 時代의 근본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作業對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시기에 있어서 日帝의 對韓侵略過程을 구명함에 있어 문제로 삼아야 할 日帝의 國粹主義團體의 侵透行跡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런데 被侵略的·韓國史的인 立場에서 본 研究가 거의 논의로 놓여지게 된 데는 하나의 과제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 近代史研究 특히 韓日兩國關係史의 研究를 尠부우視하는 경향 有었을 뿐만 아니라, 日帝治下의 제한된 學問的인 분위기에서 온 결과라 하겠다.

日帝의 國粹主義團體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검토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¹⁾ 이러한 論著들은 日帝의 侵略과 관련된 그들 행적의 많은 사실을 왜곡시켜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심지어는 日本民族으로 하여금 對外侵略精神을 고무 진작하는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第二次 世界大戰 중 美國을 비롯하여 敗戰 후 일본에서, 근자에는 韓國에서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²⁾ 이는 日帝의 패망을 계기로 해서 日帝治下의 제한된 학문적 분위기에 대한 反省에서 출발하여 새로이 이루어진 성과라 하겠다.

本稿는 이러한 研究業績을 참고하면서 1881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時期에 있어서 玄洋社를 비롯한 國粹主義團體가 成立한 時代的 背景과 成立過程 및 그 國權擴張論을 考察하고 또한 그들이 전개한 여러가지 侵略의 行跡 중에서 壬午·甲申政變, 東學農民軍蜂起, 滿洲義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對韓侵略行跡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國粹主義團體 “玄洋社”의 成立과 國權論

1. 成立背景 및 經緯

日本은 德川幕府(1603~1867) 末期인 18세기말 歐美諸國의 極東進出에 의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國家的 危機意識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對外危機意識의 發展的 解消策으로 아시아 征服論, 그 一環으로서의 韓國征服論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明治維新 이후 日本의 중요한 政策目標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韓國에 대한 政策目標가 具體的 形態를 갖추게 되고 나아가서는 政策의 次元으로 履行되기 시작한 것은 明治初期에 가장 중요한 對外政策問題로 제기되었던 ‘征韓論’에서 비롯된다.³⁾ 1873년 維新政府는 懸案의 征韓論을

- 1) 高橋正衛, 「現代史資料—國家主義運動 2—」(みすず書房, 東京, 1965), pp. 911-921의 ‘關係主要文獻’에서 這問의 動向을 알 수 있다. 특히 玄洋社社史編纂會, 「玄洋社社史」(東京, 1917)와 黑龍會編, 「東亞先覺志士記傳」上·中·下 3卷(東京, 1933-1935) 등의 편찬 의도에서 무엇보다도 잘 알 수 있다.
- 2) E.H. Nerman, “The Genyō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17, No. 3, (1944, pp. 261-248); M.B. Jansen, 「The Japanese and Sun Yat-Sen」(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4); 馬原鐵男, “自由民權運動に於ける玄洋社の歴史的評價”, (日本史研究會, 「日本史研究」 第28號, 1956); 楠原利治, 北村秀人, 梶村秀樹, 宮田節子, 姜德相, “アジア主義と朝鮮”, 「歴史學研究」 第289號, (東京, 青木書店, 1964); 西尾陽太郎, “玄洋社の成立について” 九州大學 九州文化史研究施設,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第14號, (1969); 同, “玄洋社の大陸政策” 歴史教育研究會編, 「歴史教育」 第18卷 第4號, (日本書院, 1970); 姜在彦, “大陸浪人におけるアジア主義と朝鮮問題—その一典型としての内田良平の思想と行動—” 「朝鮮近代史研究」, (東京, 日本評論社, 1970); 韓相一, 「日本帝國主義의 한 研究—大陸浪人과 大陸膨脹—」(서울, 도서출판 가치, 1980); 拙稿, “日本國粹主義團體의 一研究—玄洋社를 中心으로—” 「日本の 侵略政策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4); 金靈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서울, 博英社, 1986).
- 3) 井上清, 「新版 日本の軍國主義 II」(東京, 現代評論社, 1975); 煙山專太郎, 「征韓論實相」(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08); 井上清, 「西郷隆盛 下」, (東京, 中央公論社, 1970); 毛利敏彦, 「明治六年政變」(東京, 中央公論社, 1980) 등 참조.

둘리싸고 급기야 西郷隆盛(薩摩)이하 征韓論에 찬성하던 外務卿 副島種臣(肥前)・板垣退助(土佐)・後藤象二郎(土佐)・江藤新平(佐賀) 등 5參議가 辭表를 내고 그들의 追從勢力을 이끌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그들의 征韓論은 維新寡頭政府體制에 대한 反撥과 批判으로 격렬한 國論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江藤新平은 1874년 1월 同鄉有志들의 推戴를 받아 ‘征韓黨’의 지도자가 된 후 ‘佐賀의 亂’을 일으켰으나, 동년 3월 政府軍에 패배하여 효수당하였다. 西郷隆盛 역시 고향 鹿兒島(薩摩)에 돌아가 私學校를 설립하여 再起의 기회를 노렸으나, 西南戰爭(1877. 1~9)에서 政府軍에 패배하여 自決하였다.⁴⁾

한편 板垣退助・後藤象二郎・副島種臣・江藤新平 등은 새로운 政治運動의 方向을 모색하던 중 1874년 1월 ‘民選議院 設立建白書’를 발표하고 各地를 유세함으로써 이른바 自由民權派의 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어서 愛國公黨의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목적하에 4월 土佐에 ‘立志社’가 성립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民選議院設立의 건백은 전국적으로 크게 반향을 야기시켰다. 自由民權을 주창한 板垣退助・江藤新平 등은 본래 征韓論의 강경한 주장자로서 오히려 그들은 天皇에의 절대복종을 중시하고, 그 意識에 있어서는 民權에 종속시켜 國權의 擴充에 의해서 民權이 성립되며 對外發展을 國權을 실현하는 가장 유효한 手段⁵⁾으로 보았기 때문에 초기 自由民權論者들은 海外侵略 征韓論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지식인 곧 士族간에는 征韓論의 지지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對外的 주장이 日本人의 公議公論(民權論)이라 믿고 있었다. 이러한 공의 공론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政府의 권력이 소수의 특권적 有司(官僚)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는 곧 寡頭專制體制 때문이다. 만일 議會政治가 실시되어 정치가 공의공론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하면 일본의 대외문제는 반드시 그들의 주장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시 九州 筑前福岡 지방은 對馬島를 사이에 두고 韓國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으로 당연히 韓半島와 大陸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지방보다 지대하였다. 明治初期 이래 韓國과의 분쟁은 不平士族의 ‘征韓’意識을 더욱 고취시켰다. 또한 당시 明治維新에 의해서 해체된 九州 筑前福岡藩士의 상황을 보면,

당시 福岡藩과 같이 그 封祿이 52萬石에 달해 內地屈指의 大藩으로서 數萬의 士를 養成하였다. 한번 藩政을 폐지하게 되자 藩士의 困窮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혹은 他國으로 流轉하고, 혹은 北海道로 移民渡航하고, 혹은 宰府・前原의 緣者에게 의지하여 쓸모없는 公債證書를 끌어안고 嘆息할 뿐이었다. 世祿과 世職에서 떨어진 悲嘆은 新政府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섰고 이 反新政府의 심정은 有司(官吏)들에게 대한 공격으로 되고 다시 정부 官吏의 놀고먹음을 개탄하며 나아가 外交의 不振拙劣함을 분개하고, 혹은

- 4) 裏成東, “征韓論攷” 『童山申泰植博士頌壽記念論叢』, (대구, 啓明大學出版部, 1969); 黑龍會編, 「西南記傳」上卷 1・2, 中 卷 1・2, 下卷 1・2卷(東京, 1908~1911); 後藤靖, 「士族反亂の研究」(東京, 1967); 遠山茂樹, “征韓論・自由民權論・封建論 I・II” 歷史學研究會編, 「歷史學研究」第143號, 第145號, (東京, 岩波書店, 1950) 등 참조.
- 5) 旗田崑, 「日本人の朝鮮觀」(東京, 勁草書房, 1969) p. 21.

征韓論에 대한 당국의 優柔부단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다.⁶⁾

이와 같은 사실은 단지 福岡士族에 한하는 것이 아니지만 福岡藩의 경우에는 더욱 그 침체상이 심각한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舊福岡藩士로 하여금 士族叛亂이나 自由民權運動에 결집시키게 한 것은 廢藩置縣(1871), 徵兵制의 實施(1872) 등에 의한 封建의 士族으로서의 특권의 상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으며, 反政府的인 것이며 征韓論 뿐만 아니라 民權論에도 가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征韓論을 그 精神의 基盤으로 하여 1870년대의 反政府運動에 가담했던 士族集團 가운데 向陽社⁷⁾를 모태로 하여 그 社名을 ‘玄洋社’로 개칭하여, 箱田六輔, 進藤喜平太, 頭山滿 등이 平岡浩太郎을 사장으로 福岡에 본부를 두고 이른바 大陸浪人으로 알려진 集團인 玄洋社를 1881년 2월에 창립하였다. 그후 그들은 日帝가 對外侵略政策에서 표방한 각종 이데올로기의 기반적 論理인 征韓論, 自由民權論, 脫亞論, 大東合邦論⁸⁾ 등을 내걸고 國民同盟會(1900), 黑龍會(1901), 日露協會(1902), 對露同志會(1903), 浪人會(1908)라는 團體까지 결성하여 日帝當局 특히 陸軍參謀部와 결탁하여 일제의 對外侵略의 先頭에서 冒險의인 尖兵의 役割을 하면서 일본 國民들에게 對外侵略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2. 國權擴張論

그들은 玄洋社의 창립과 동시에 ‘玄洋社 憲則’을 제정하였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玄洋社 憲則

第1條 皇室을 敬戴하라

第2條 本國을 愛重하라

第3條 人民의 權利를 固守하라⁹⁾

이 憲則은 天皇主義·國權主義·民權主義를 혼효한 3原則을 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向陽社 당시의 民權의 색채에 대신하여 國家主義 國權의 색채의 性格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玄洋社의 宣言文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玄洋社의 성격을 설명한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玄洋社는 憂國志士의 단결이고, 愛國志士의 단결이며 尊王殉忠의 단결이다. 그리고 民權伸張論者의 단결이고, 그리고 또한 軍國主義者의 단결이다. ……생각컨대 光輝있는 國史의 회고는 國民의 원기를 진작하고 國民의 元氣振作은 다시 한번 光輝있는 國사를 顯彰하는데 있다. 우리가 玄洋社를 창립하는 所以는 이와 같은 민족적 사명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¹⁰⁾

6) 前掲書, 「玄洋社社史」, p. 73.

7) 원래 福岡 지방에서는 士族集團으로 1969년에 就義隊·併心隊가 있었는데, 1971년에 해산되고, 그해 高場塾, 이어서 1874년 一到社, 矯志·強忍·堅志의 3社 조직, 1877년 3社를 一團으로 하여 十一學舍 설립, 1878 開塾社, 向陽社, 向陽義塾, 筑前共愛共衆會 등을 설립하였다.

8) 前掲書,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p. 42, pp. 58-80 참조.

9) 前掲書, 「玄洋社社史」, p. 225.

라고 하여 玄洋社는 그 창립의 까닭 곧 目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창립 당시의 憲則 제 3조의 ‘人民의 權利를 固守한다’는 玄洋社의 民權論은 절대주의 반격 앞에 타협·좌절되고 國權論이 정부권력과 결합하면서 유력하게 되어 軍國主義를 고창하고 絕對主義의 侵略政策의 추진자가 되어 그 중요성이 점차로 사라졌다.¹¹⁾ 이리하여 玄洋社는 國權의 확장과 軍國主義를 부르짖고 드디어는 1886년 8월에 民權과 國權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玄洋社는……民權伸張論을 버리고 國權主義의 강화를 제창한다. 民權을 伸張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분별없이 民權만을 주장하고 國權이 消長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면 國辱을 如何히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日東(日本：筆者註)帝國의 元氣를 유지하고자 원한다면 軍國主義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며, 國權을 크게 떨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 결국 어제까지의 民權論을 弊履처럼 내버리게 될 것이다. 더우기 당시의 민권론자들은 자난날의 意氣를 잃고, 입으로써는 용감하지만, 實行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에서 玄洋社는 참으로 이와 같은 민권론자들과 서로 背馳가 된다.¹²⁾

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1890년 제 1회 帝國議會가 소집되어 山縣有朋 總理大臣은 朝鮮을 日本의 主權線, 滿洲를 利益線으로 할 것을 시정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¹³⁾ 玄洋社는 이 時流에 편승하여 民權論에서 國權論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그의 對外膨脹主義(아시아주의)를 내걸기에 이르는 것은 玄洋社의 본질에서 볼 때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곧

玄洋社의 뜻은 본래 內國의 政策鬭爭에 있지 않고 淸韓에 있으며 뜻을 淸韓에 퍼고자 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內國 事端이 복잡하여 좌시하기에는 참을 수 없게 되어 때로 활동을 내국에서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¹⁴⁾

라고 하였다. 결국 1890년을 전기로 하여 玄洋社의 활동은 반정부적 요소를 탈피하여 완전히 軍國主義 권력과 癒着하면서 日帝의 侵略政策의 촉진제 또는 그 前衛隊로서의 性格으로 전환한 것이다.¹⁵⁾ 이리하여 그들은 社名과 憲則 및 宣言文 등에서 示唆하는 바와 같이 玄海灘을 건너서 일본의 韓半島 및 大陸 侵略의 선두에 서서 모험적인 尖兵의 역할을 하여

10) 前掲書, 「玄洋社社史」, p. 3.

11) 前掲論文, “自由民權運動に於ける玄洋社の歴史的評價”, 「日本史研究」第28號, p. 64.

12) 前掲書, 「玄洋社社史」, p. 408; 前掲論文, “玄洋社の成立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第14號, p. 63; 당시 淸國 丁汝昌이 이끄는 北洋艦隊가 日本國 九州 長崎에 寄港한 목적은 이때 세계적 수준의 軍艦을 가지고 韓國의 甲申政變을 겪은 日本을 은근히 위압하는 데 있었다. 더우기 淸國 海軍兵士들과 日本의 警察, 民間人들간에 충돌 사건이 일어나 日本人들은 淸國人の 모욕적 행동에 대하여 매우 분격하였다고 한다(岡義武, 「近代日本政治史」 I, 東京, 創文社, 1962, p. 428).

13) 前掲書, “大陸浪人におけるアジア主義と朝鮮問題—その一典型としての内田良平の思想と行動—” 「朝鮮近代史研究」, p. 347; 日本國際政治學會編, 「日本外交史研究—明治時代—」(東京, 有斐閣, 1957), pp. 186-195의 ‘山縣有朋意見書’.

14) 前掲書, 「玄洋社社史」, p. 5.

15) 前掲書, “大陸浪人におけるアジア主義と朝鮮問題—その一典型としての内田良平の思想と行動—” 「朝鮮近代史研究」, p. 347.

일본 국민들에게 對外侵略을 선동한 전형적인 國粹主義團體로서 그 嚆矢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노만(E.H. Nor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帝國主義의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조직중심 혹은 이른바 國家主義運動의 메카(Mecca)¹⁶⁾라고 볼 수 있다.

1898년 이후 玄洋社의 國權擴張과 軍國主義의 확립을 위한 行跡을 통관해 볼 때 그들의 行跡의 특성은 모두가 그들의 단독행동은 아니었다. 玄洋社는 그 주변에 分派된 團體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가진 行動團體를 가지고 그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玄洋社는 1880년대 이후 政府 首腦部에 접근하여 점차 民權運動에서 對外強硬論을 주장하는 國粹主義團體로서 성격을 강화하여 條約改正反對의 國民運動에 가담하여 井上馨案, 大隈重信案에 대한 반대를 하고, 國會開設 이후는 政府나 與黨의 院外團體의 색채를 띠고, 1892년 總選舉 때에는 당국에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民黨彈壓에 관여하였다.¹⁷⁾ 이리하여 당시의 國粹主義團體 중에서 그 源流를 이루었던 것은 玄洋社의 平岡浩太郎 箱田六輔 進藤喜平太 頭山滿 등 巨頭들이 玄洋社의 政綱과 行跡을 統括하였고 특히 平岡의 財政的 後援¹⁸⁾과 그들의 頭目인 頭山滿¹⁹⁾, 玄洋社員이며 黑龍會의 主幹인 內田良平²⁰⁾의 존재가 크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III. 國粹主義團體 “玄洋社”의 韓國侵略行跡

1. 壬午·甲申政變과 玄洋社

전술한 바와 같이 維新政府의 寡頭體制는 征韓論을 둘러싸고 激烈한 國論을 불러일으켰으나 征韓 자체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日本政府가 大陸政策의 일환으로 征韓政策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征韓論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1874년 5월 臺灣에 出兵하였다. 이어서 日本政府는 韓國에 눈을 돌려 1875년 8월 雲揚號事件을 일으켜 군사적 위협하에 이듬해 2월 江華島條約을 체결하였다. 하여튼 日本은 이 條約의 체결 당시부터 韓國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및 경제적인 侵略

16) 荒原朴水, 「大右翼史」(東京, 大日本國民黨, 1967), p. 28; Ibid, “Genyō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17, No. 3, pp. 261-284; E.H. 노먼, 陸井三郎譯, “日本帝國主義の源流—玄洋社の研究—”, 「日本における兵士と農民」(東京, 白日書院, 1947), p. 181.

17) 拙稿 前掲論文, “日本國粹主義團體의 一研究—玄洋社를 中心으로—” 「日本の 侵略政策史研究」, pp. 149-158.

18) 前掲書, 「玄洋社社史」;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下卷; 東亞同文會編, 「對支回顧錄」下卷(東京, 原書房, 1968) 등 참조.

19) 前掲書, 「西南記傳」下卷 2; 前掲書, 「玄洋社社史」; 藤本尚則, 「巨人頭山滿翁」(東京, 政教社, 1922) 등 참조.

20) 黑龍俱樂部編, 「國士內田良平傳」(東京, 原書房, 1967); 瀧澤誠, 「評傳內田良平」(東京, 大和書房, 1976); 前掲書, “大陸浪人におけるアジア主義と朝鮮問題—その一典型としての內田良平の思想と行動—” 「朝鮮近代史研究」; 初瀬龍平, 「傳統的右翼內田良平の研究」(福岡, 九州大學出版會, 1980) 등 참조.

을 위한 계획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갔던 것이다.

1882년 韓國에 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일본정부는 軍亂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또 착수하고 있을 때 玄洋社는

事件이 발발하자 西南役(西南戰爭：筆者註)의 간당인 鹿兒島の 野村忍助, 福岡의 平岡浩太郎 등은 선배의 유지를 수행함은 今秋에 있다 하고, 서로 호응하여 征韓義勇軍 조직에 착수, 민간유지의 힘으로써 일거에 征韓의 목적을 달성코자 기도했다…그들은 조속히 정한의 모의를 추진하되 野村은…의무성 御用掛가 되어 먼저 渡韓하여 담판의 模樣을 감시하여 거사의 기회를 엿보고 平岡은 內地에서 동지의 규합에 힘써…선발대를 한국으로 보내었다.²¹⁾

그러나 그들은 중간에 지체하였기 때문에 釜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濟物浦條約이 체결된 후여서 舉事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들의 행동에서 보듯이 당시의 일본에는 여전히 征韓의 意氣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들은 韓國 배후에 있는 淸國의 존재에 대해서 활동 개시의 필요가 절감되어 中江兆民·長谷場純孝·末廣鐵腸·樽井藤吉 등은 ‘活動黨’을 조직하고, 頭山滿에게도 呼訴하여 玄洋社로부터 90명이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이와 같은 氣味相通하는 國權論者들의 연계관계는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發展하였다.²²⁾

1884년 甲申政變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한 金玉均·朴泳孝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그들이 韓國政府內의 親日要人이었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으나 이제 한국의 위험인물로 뒤에 무대접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反政府的 在野人士들 중에 그들 亡命者들에 이른바 동정하고 支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때 (1885) 東京 芝公園 부근에 근거한 玄洋社員 久田全·來島恒喜·の野半介 등은 熊本の 前田下學, 加賀의 廣瀨千磨·關谷斧太郎, 大和의 樽井藤吉 등 同志와 함께 金玉均을 도와 ‘義勇軍’을 조직하여 거사할 계획을 세우고 頭山滿의 同意를 얻어 美和作次郎 이하 동지들이 계속해서 東京에 올라왔으며, 이밖에 玄洋社 외에서는 熊本·金澤·青森 등 동지도 새로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福岡에 있는 頭山滿은 神戶에 머물러 있는 金玉均과는 처음으로 만나 그는 金玉均을 尋常凡庸의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끝에 窮狀맞은 그를 구조란 명목으로 持參金 1,000圓 정도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이어 東京에 온 頭山滿은 金玉均이나 그들 동지들에게 일을 서둘지 말고 크게 自重할 것도 당부하였다.

한편 麻布의 龍源寺를 비밀의 相談所로 정하고 새로운 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부산에 ‘善隣館’이란 韓·淸·日 3國語의 語學校를 세워 여기에 大陸에 뜻을 가진 青年을 모아 크게 준비를 거듭하여 이 語學校를 據點으로 하여 開北獨立黨의 運動을 지원하려고 하였다. 金

21)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56-58.

22) 前掲論文, “玄洋社の大陸政策”, 「歴史教育」第18卷 第4號, p. 70.

玉均 역시 때때로 이 會合에 참가하였고, 善隣館의 設立 趣旨書는 中江兆民이 執筆하였으며, 資金은 前田下學, 赤澤常容 등이 조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때 大井憲太郎 등의 ‘大阪事件’이 폭로되어 전국적인 大檢學 선풍이 일기 시작하여 이 계획도 유산되어 단념하고 말았다.²³⁾

이 大阪事件²⁴⁾이란 大井憲太郎·小林樟雄·磯山清兵衛·新井章吾 등 급진 民權論者들의 一黨이 金玉均의 이른바 불우한 처지를 동정한 나머지 朝鮮에 무력적인 침투를 하여 事大黨政府를 타도하고 獨立黨을 지원하려는 事件이다. 그들의 의도가 어디 있었던가는 별문제로 하고서라도 그 실행계획은 면밀하지 못하여 同志의 結集·資金調達 단계에서 곧 당국의 注目하는 바가 되고, 또한 몇차례 強盜事件, 同志의 背反, 資本の 濫費 등 무질서를 露呈하기에 이르렀다. 大井一黨은 그들의 계획에서 金玉均 등 韓國人에게는 사전에 양해도 없이 추진하였지만 事件이 확대되자 그 여파는 당연히 파급되어 왔으며, 玄洋社와 연락을 취하고 있던 者 가운데서도 大和의 樽井藤吉 등과 같이 협의를 입어 걸려진 자도 있었다(樽井은 결국 면소가 되었다).²⁵⁾

이 大阪事件의 경위를 보면 自由黨이 解黨에 의해서 방향감각을 잃고, 私的 不滿과 公的 不滿이 혼동되어 情緒不安定 상태에 있는 自由黨 急進派들의 強迫感을 폭발적으로 解消하려는 口實에 불과한 면을 엿볼 수 있다.²⁶⁾

大阪事件으로 일본정부는 金玉均이 이 계획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의 自由行動을 숙박하여 활동이 점차 곤란하게 되고 급기야 그를 小笠原島에 流配·軟禁하였다.²⁷⁾ 당시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그가 政治犯이기 때문에 이를 일본에서 보호할 경우에 朝鮮과의 國交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玄洋社의 來島恒喜·的野半介 등은 小笠原 開拓調査라 일컫고 그곳에 건너가 그를 격려하여 후일의 蹶起를 맹약하였던 것이다. 金玉均은 그후 1888년 小笠原島로부터 北海道에 옮겨지고, 1891년에 이르러 拘束에서 석방되어 東京에 들어오게 되었다. 東京에 들

23)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118-121.

24) 大阪事件은 甲申政變의 전단계에 있어서 朝鮮改革의 구체적 방안을 획책한 後藤象二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板垣退助를 중개로 해서 駐日프랑스公使 시옹키윅즈(J.A Sionkiewicz)와 교섭, 프랑스로부터 援助資金(借款) 성립까지 거의 확실되어 갈 때, 甲申政變의 실패로 金玉均·朴泳孝 등 開化黨이 망명하여 그 계획도 頓挫하여 부득이 사태를 정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板垣退助와 프랑스公使의 密約때 通譯으로 立會, 그 사정을 잘 아는 自由黨員 小林樟雄은 雄心이 발발, 大井憲太郎과 내통해서 大井을 앞세우고 독자적인 朝鮮改革援助行動의 계획을 꾸미었다. (彭澤周, “朝鮮問題をめぐる自由黨とフランス”, 「歴史學研究」第265號, 東京, 青木書店, 1962; 石川諒一·玉水常治 共編, 「覆刻 自由黨大阪事件」, 東京, 長陵書院, 1981 참조).

25)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92-117; 平野義太郎, 「馬城大井憲太郎」(名古屋, 風媒社, 1938) 참조.

26) 裴成東, 「日本近代政治史」(서울, 法文社, 1976), p. 244;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東京, 塙書房, 1969), p. 424.

27) 日本政府는 처음에 亡命者들에 대해서 浮대점을 하면서도 朝鮮政府에서 범인의 引渡를 요구해 왔을 때 거절하였으며, 조선정부가 金玉均 暗殺 자객 池運永을 비밀히 보내었을 때도 駐韓日本公使館을 통해서 池運永의 本國召喚을 권고하였을 정도의 호의는 가지고 있었다.

아은 金玉均은 朝鮮靑年을 모아 祖國의 獨立運動을 시작하였다. 일본인으로는 福澤諭吉·頭山滿·岡本柳之助·犬養毅 등이 오랜 망명생활에서 초조하게 쫓겨 다니는 그를 이른바 시종 비호하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運動은 뜻대로 되지않고, 거기에서 朴泳孝와의 사이에 不和不信까지 생겨 이만저만한 고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朝鮮政府나 淸國으로서는 그들의 存在를 방심할 수 없어, 朝鮮政府는 李逸植·洪鍾宇 등을 東京에 보내어 駐口淸國公使館 參贊官 劉慶汾 등과 모의케 하여 金玉均·朴泳孝의 不和를 틈타, 李逸植은 朴泳孝, 洪鍾宇는 金玉均을 각각 暗殺할 계획을 세웠다. 洪鍾宇는 金玉均과 親交를 맺어 이윽고 신뢰관계가 깊어지자 金玉均·朴泳孝의 동정자 중에서도 그들의 刺客를 신용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金玉均에 대해서 韓國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피하는 하나의 결단으로서 淸國의 李鴻章에게 직접 談判을 해보는 것이 어떠한 것을, 劉慶汾은 淸國政府의 지령으로 李鴻章의 子 李經芳을 시켜 “貴下의 뜻하는 朝鮮의 內政改革에 父 李鴻章의 同意援助를 성립시킬 수 있다. 上海에서 會談을 하고 싶다”라는 密書를 金玉均에서 手交하였다.²⁸⁾ 朝鮮의 改革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提携까지 생각하고 있던 金玉均의 마음은 움직였다. 頭山滿이나 岡本柳之助는 洪鍾宇의 위인이나 그들의 提案은 전혀 信憑性이 없다고 크게 반대하였다. 金玉均은 그 반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법의 굴에 들어가지 않고 법의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심경으로 大轉回의 계기를 잡으려는 생각에서 上海行을 결심하고, 그것은 과연 決死의 여행이라 생각하였다. 때는 1894년 3월이었다.

金玉均은 書生 和田延次郎, 洪鍾宇, 駐日淸國公使館 通譯 吳葆仁과 함께 神戶 출항 日本郵船 西京丸으로 上海로 건너가 27일 東和洋行에 투숙하였으나, 이튿날 여기서 洪鍾宇에게 암살당하였다. 이는 韓·淸 兩政府가 계획한 것으로, 淸國政府의 李鴻章은 高宗에게 暗殺 성공의 축전을 보냈다. 군함 威遠號에 洪鍾宇가 金玉均의 유해와 함께 도착하자 ‘謀反大逆不道罪人玉均’이라 하여 梟首하였는데, 그 처참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을 케 하였다.

한편 日本에서 5월 20일 東京 淺草 本願寺에서 金玉均의 葬禮式이 거행되었는데, 특히 國民黨의 政治家나 玄洋社의 社員 중에서 參禮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시민이 참가하여 金玉均에게 동정을 표하였다. 對淸開戰論은 때를 같이해서 크게 일어나고, 片岡健吉,

28) 당시 洪鍾宇가 金玉均의 동정을 엿보면서, 한편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淸의 袁世凱를 통해서 李鴻章의 子 李經芳과 연락을 취하여 金玉均을 淸國으로 유인해서 암살할 계획을 강구하였다. 李經芳은 前駐日淸國公使로 있을 때, 金玉均과 사귀어 아는 사이기 때문에, 金玉均이 日本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틈을 노려서, 李鴻章 및 그의 아들 李經芳으로부터 편지를 미리 준비하여 유인을 책동하던 만드시 金玉均이 淸國에 건너올 것이라는 예상을 세웠던 것이다(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126-127; 河村一夫, “李鴻章·李經方と金玉均の關係について”, 「朝鮮學報」第74輯, 朝鮮學會, 天理, 1975 및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卷, 서울,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등은 李經芳으로 되어 있다).

河野廣中, 林有造 등 自由黨系 지도자는 陸奧宗光 外務大臣에 대해서 맹렬하게 開戰을 강요하였다. 玄洋社에서는 的野半介·平岡浩太郎 등을 陸奧 外務大臣 및 參謀次長 川上操六에 대해서 開戰의 결의를 요구하였다. 7월 25일 淸·日 兩國艦隊는 豊島沖에 있어서 사실상 戰鬪狀態에 들어가 陸軍은 29일 牙山灣을 점령하고, 8월 1일 일본은 淸國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였다.

玄洋社의 金玉均·朴泳孝 등 開化獨立黨에 대한 이른바 援助는 金玉均의 暗殺이라는 비극으로서 끝났으나, 그것은 玄洋社員의 후년 韓半島와 大陸에서의 활동의 단서가 되는 것으로 玄洋社의 對韓浸透行跡을 준비한 제 1 단계로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2. 東學農民軍蜂起와 天佑俠

日本은 1876년 江華島條約 이후 한국에 가장 먼저 浸透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84년 甲申政變이 실패한 후 그 세력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반면에 韓國政府를 지도하고 있는 淸國의 세력은 더욱 확대해 졌다. 그러나 1894년 韓國에 東學農民軍이 蜂起하자 日本政府나 軍部는 이를 계기로 兵力으로써 朝鮮政府의 改造를 단행하고 甲申政變 후 不振한 日本勢力의 回復을 위해서 兵力을 보낼 필요성이 논의되고, 6월 2일 非公式的인 淸의 援兵 請願 정보에 대해서, 出兵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大本營을 설치하고 駐韓大使 大島圭介에 대해서 海軍陸戰隊를 인솔케하고 陸海軍에 動員令을 내려 廣島의 大島義昌 小將을 混成旅團長에 임명하여 仁川으로 向發토록 하였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해서 玄洋社의 巨頭들은 韓國에 오랫동안 살면서 몰래 活動해 온 日人들과 함께 접촉하게 되었다.²⁹⁾ 이른바 韓國通으로 알려진 그들은 1892년 福岡 출신 釜山領事館 領事館補인 山座圓次郎의 도움으로 부산에 만든 大崎正吉의 法律事務所를 거점으로 하여 情報를 모으고 정세의 변화를 분석해 온 大陸浪人들 이었다.³⁰⁾ 그들은 東學農民軍이 봉기한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民心을 조사하고 당시의 정세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韓國問題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곧 大崎正吉은 反日亡國의 朝鮮政府와 오랫동안 朝鮮을 지배해 온 淸國의 勢力에 철퇴를 가하고 東學徒의 도움을 얻어 韓半島에 親日政府를 세울 때가 왔다고 믿었다.³¹⁾

大崎正吉은 자금과 사람이 부족하여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韓國의 실정을 日本人들에게 전하고, 軍資金을 조달하고 同志를 규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 부산을 떠나 東京으로 돌아가서 '二六新報社'(二六新聞社)의 鈴木天眼을 찾아가 자기의 사명을 말하고 그(鈴木)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玄洋社는 東學農民軍의 봉기를 이용하여 韓國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玄洋社의 的野半介는 金玉均의 葬禮式이

29) 韓祐旆, “開國後日本人의 韓國浸透”, 「東亞文化」 第1輯(서울, 서울大文理大附設 東亞文化研究所, 1963), pp. 1-31.

30)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147-172에서 大崎法律事務所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이른바 韓國通이라는 大陸浪人들의 자세한 활동상황을 알 수 있다.

31) 前掲書, 「國士內田良平傳」 p. 51.

東京에서 있던 이튿날 陸奧宗光 외무대신을 찾아가서 당국의 의견을 질문하고, 淸國과 開戰의 급무를 역설하였다.³²⁾ 그러나 陸奧는 ‘時機尙早論’을 말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적극적인 主戰論者이며 大陸侵略主義者인 陸軍參報次長 川上操六에게 소개를 하여 그와 상의할 것을 중용하였다.³³⁾ 川上次長은 的野半介로부터 淸國膺懲論³⁴⁾을 들은 후 그 해결의 방도로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아무래도 伊藤首相이 非戰論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전쟁을 생각하기에는 힘든 實情이고…이어 당신은 玄洋社中の 한사람이라 하는데, 원래 同社는 多士濟濟라는 遠征黨의 淵藪이라 듣고 있다. 시국을 급속히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한사람이 불을 지르는 자가 없겠는가? 일단불만 붙여 놓는다면 消火作業은 우리들의 임무이니까 나아가서 本務를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의 실권이 非戰論者의 수중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³⁵⁾

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부추겨서 그들의 蹶起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的野는 川上次長과 만난 것을 頭山滿과 平岡浩太郎에게 보고하고 ‘放火’를 위한 준비를 논의하였다. 곧 平岡은 的野의 주선으로 川上次長과 만나 마치 옛 친구와 같은 분위기에서 東方經營論과 主戰論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³⁶⁾

平岡·頭山·的野 등은 東學農民軍의 蜂起를 기회로 이용하여 放火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작은 행동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平岡은 東京에 있는 內田良平을 福岡으로 불러 행동단체에 참여시켰다.³⁷⁾ 바로 이때 玄洋社는 ‘二六新報’의 鈴木天眼을 통하여 韓國의 정세와 실정에 밝은 大崎 일당과 연결되었다. 玄洋社는 大崎과 협력하여 平岡의 재정적 지원으로 玄洋社의 周圍의 行動團體로서 天佑俠이라는 俠客團을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는 15명으로 이루어진 遊擊隊 형태의 작은 단체이었다.³⁸⁾ 天佑俠은 그 檄文에서 詩酒淫樂으로 소일하는 朝鮮政府와 閔氏一族의 압정을 깨뜨려 도탄에 빠진 조선 백성을 구제하고 閔氏의 악정을 뒤에서 조종하고 지원하는 淸國을 한반도에서 쫓아낼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조직의 동기를 밝히고, 이어서 격문은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이웃나라의 存亡之秋를 목과할 수 없어 韓國과 同祖同文의 국가인 일본은 의협인을 한국에 보내게 되었다고 그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³⁹⁾ 물론 天佑俠의 실질적인 목적은 그 檄文이 주

32) 前掲書, 「玄洋社社史」, pp. 435-436;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143-144.

33) 前掲註 32); 前掲書, 「巨人頭山滿翁」, pp. 338-339.

34) 前掲註 33) 참조.

35) 前掲書, 「巨人頭山滿翁」, pp. 339-340;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 144; 前掲書, 「玄洋社社史」, p. 439; 前掲書, 「國士內田良平傳」, p. 51.

36) 前掲書, 「玄洋社社史」, p. 437;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 145.

37) 前掲書, 「國士內田良平傳」, p. 50.

38) 前掲書, 「日本帝國主義의 한 研究 一大陸浪人과 大陸膨脹一」, p. 59, 註 45)에는 天佑俠 단원의 名單 15명 중에 葛生修亮이 누락되어 있다.

39) 前掲書, 「國士內田良平傳」, pp. 70-73;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211-215; 前掲書, 「玄洋社社史」, pp. 452-455 등에 檄文의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장하는 대의명분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天佑俠의 성격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天佑俠은 어떤 종류의 단체인가? 한마디로 川上 장군의 이른바 放火의 役割을 위한 조직체였다. …朝鮮의 東學黨을 고무하여 조선에 풍운을 일으켜 급기야는 日淸戰爭의 대결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자는 것이 그 단체의 주요 목표이었다.⁴⁰⁾

天佑俠은 6월 하순에 부산에 도착한 이후 전국에서 석달 동안 日本軍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 가지 게릴라식 활동과 폭력을 감행함으로써 放火의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침략을 위한 행적은 한국의 내정에 소요를 일으켰다.⁴¹⁾

그러나 玄洋社와 黑龍會의 자료는 天佑俠의 행적을 그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다.⁴²⁾ 또 天佑俠의 단원들이 전라도 淳昌에서 全璋準과 회견하고 東學軍의 軍師, 遊擊軍과 각 軍部隊의 大將이 되어 활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신뢰성이 거의 없다. 그들 기록에 나타난 일본 浪人들의 行動時間과 行動場所를 東學農民軍의 행동시간과 행동장소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東學軍이 全州城을 칠수한 것은 6월 11일이며 이 전주성 칠수로 전투는 일단 휴전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釜山에 도착하였다는 6월 27일에는 이미 戰鬪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

40) 前掲書, 「巨人頭山滿翁」, p. 342; 內田良平, 「硬石五十年譜」(미간행된 內田의 회고록) 1, p. 22; 萬生能久, 「日支交渉史」上卷(東京, 黑龍會出版部, 1935), pp. 220-221; 前掲書, 「玄洋社社史」, p. 499 등은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前掲書, 「日本帝國主義의 한 研究 一大陸浪人과 大陸膨脹」, p. 59, 註 47) 참조.

41) 天佑俠의 행적에 대해서는 前掲書, 「玄洋社社史」, pp. 462-482;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173-296; 前掲書, 「國士內田良平傳」, pp. 69-100; Ibid, "The Genyō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17, No. 3, pp. 281-282.

42) 天佑俠의 과장된 行跡은 前掲書, 《玄洋社社史》,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이외에도 鈴木天眼, 「韓山虎嘯錄」, 「黑龍」제 1호~제 19호(1901. 5~1902. 12)와 清藤幸七郎編, 「覆刻 天佑俠」(東京, 長陵書院, 1981)에 잘 나타나 있다.

43) 前掲書, 「玄洋社社史」, pp. 462-463에 의하면 그 部署는 다음과 같다.

本營 總督 全璋準

軍師 田中侍郎・鈴木天眼・吉倉汪聖.

遊擊軍 兵七十人 韓將 金氏

大將 內田甲(良平), 副將 西脇榮助.

東面軍 兵一百人 韓將 裴氏・全氏

大將 時澤石一, 副將 井上藤三郎.

西面軍 兵一百人 韓將 崔氏・安氏

大將 千葉久之助, 副將 大久保肇.

南面軍 兵一百人 韓將 李氏・趙氏

大將 白水健吉, 副將 日下寅吉.

北面軍 兵一百人 韓將 朴氏・鄭氏

大將 大原義剛.

輜重軍 兵五十人

大將 大崎正吉.

赤十字軍兵 三十人

大將 武田範之.

말을 모두 믿는다 해도 그들이 전투에 참여 하였거나 활동을 도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그들이 10여일을 걸려 淳昌에 있는 東學軍 本營에 도달했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부산에 도착한 6월 27일부터 10여일이 지났다면 7월 10일 전투가 된다. 그러나 그들이 전투를 이틀 동안했다는 7월 10일 전후에는 어떠한 전투도 없었다.⁴⁴⁾ 이 무렵 全瑋準은 金堤·金溝·秦仁 등지를 거쳐 長城·潭陽·淳昌·玉果·南原·昌平·順天·雲峰 등지를 방랑하고 있었다. 淳昌에 머무른 시기는 全瑋準의 供草 등으로 미루어 보아 6월 말경의 수일간이므로 이 日本側이 기록한 일자는 신빙성이 적다.⁴⁵⁾

이미 東學軍이 全州를 철수하여 6월 11일 이전인 6월 7일에 日本政府는 韓國政府에다 東學軍을 토벌하기 위한 출병을 통고하였고, 일본 浪人들이 東學軍을 돕기 위하여 부산에 도착하였다는 6월 27일에는 이미 出兵 통고에 따라 일본 混成旅團의 제 2차 수송부대가 仁川에 도착하던 날이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한 대로 淸國이 東學軍에 참여한 일본 浪人들 때문에 출병을 하였다면 낭인들이 東學軍에 참전한 것으로 주장한 6월 27일 이후에 출병을 해야 할 것이다. 韓國政府는 6월 1일에 서울에 와 있던 袁世凱를 통하여 원병을 청하였고, 6월 5일에 袁世凱가 淸國政府에 出兵要請을 하였으며, 6월 8일에는 淸軍의 一陳이 牙山에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낭인배 집단인 天佑俠이 東學軍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일자보다 20일 이전에 이미 淸軍이 韓國에 상륙하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淸國이 출병을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東學農民軍의 蜂起는 처음부터 '斥倭洋倡義'를 주장하여 反外勢의 기치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東學農民軍蜂起를 빌미로 하여 韓國에 군대를 파병한 이후부터는 東學軍 내부의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玄洋社나 黑龍會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⁴⁶⁾

결국 일본군이 東學軍과 싸우기 위하여 韓國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그 시기와 때를 같이 해서 日帝의 앞잡이들인 이 낭인들이 동학군에 참전하기 위하여 동학군 本營을 찾아 갔다는 사실은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믿어지지도 않는다. 다만 東學農民軍이 봉기하자 부산에 와 있던 日本浪人 15명이 동학군에 참여하고자 謀議를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하는 등 약간의 행동을 위한 책략도 꾀하였을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謀議와 策略일 뿐 행동은 아니었으며, 더우기 全瑋準과 만나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日本軍은 東學農民軍의 蜂起與否와는 아무 관련없이 對淸戰爭을 이미 도발하고 있을 뿐만

44) 田保橋潔, 「日淸戰役外交史の研究」(東京, 江刀書院, 1951); 信夫淸三郎, 「日本政治史」(東京, 南窓社, 1955)·信夫淸三郎著·藤村道生校訂, 「增補日淸戰爭」(東京, 南窓社, 1970); 前掲論文, “アジア主義と朝鮮”, 「歴史學研究」第289號, pp. 25-26. 등 참조.

45) 國史編纂委員會, 「東學亂記錄」下卷(韓國史料叢書 第10, 서울, 1959), pp. 550-551.의 全瑋準 供草 己未 3월 7일 四次問目.

46) 前掲註 44) 참조; 山邊健太郎, “東學亂と日本人”, 「日本の韓國併合」(東京, 太平出版社, 1970), pp. 189-203.

아니라 日本浪人들의 浸透行跡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빙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⁴⁷⁾

또한 天佑俠의 단원인 內田良平은 이 天佑俠의 활동이 韓半島와 大陸侵略行跡의 출발점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뒷날 黑龍會를 결성할 때(1901) 힘이 되어 준 本間九介·吉倉汪聖 등과, 또 日帝의 韓國強制併합의 실현을 위해 같이 裏面工作을 한 武田範之와 같은 낭인들과 만날 수 있었다.

淸日戰爭이 일어나자 天佑俠의 단원들 중에는 일본군의 보조원으로 韓國에 남아서 일한 사람도 있었다. 玄洋社員 山崎羔三郎은 1894년 초여름 韓國의 긴박함을 보고 淸國兵을 운반하는 汽船에 잠입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淸國軍이 상륙집결하는 牙山의 軍事情況을 探查해서 일본군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는 牙山방면의 일본군의 作戰計劃의 기초가 되었다. 平壤陷落 후, 한번 귀국한 山崎는 廣島大本營에 있어서 第2軍司令部附通譯官에 임명되어, 日淸貿易研究所 출신의 藤崎秀·猪田正吉·大熊鵬·向野堅·鐘崎三郎과 함께 遼東半島를 공략하는 일본군에 선행해서 적지에 잠입하는 特別秘密偵察의 임무를 명령받고 水雷艇으로 金州 연안에 보내어진 6명은 10월 24일 밤중에 2隊로 나누어 몰래 상륙 즉시 분산하였으나 엄중한 경계망에 걸려 체포되어 山崎는 金州城 밖에서 최후를 마쳤다.⁴⁸⁾

결국 東學農民軍의 봉기는 외세를 韓國에 불러들여 淸日戰爭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관계를 형성하는 단서가 되었으며, 동시에 征韓論 이래 韓國에 浸透할 틈만 엿보아 왔던 大陸侵略主義者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3. 滿洲義軍과 玄洋社

1895년 淸日戰爭에서 승리한 日本은 下關係約(1895. 4)의 결과 淸國에서 遼東半島를 할양 받았으나 이러한 淸에 대한 日本의 利權主張을, 열강은 세력균형을 위해 견제하려 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프랑스·독일 등이 ‘三國干涉’을 하게 되었다.⁴⁹⁾ 당시 韓國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과 內政 간섭으로 인해 反日意識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이리하여 三國干涉으로 인해 일본이 열강 앞에 무력함을 본 朝鮮政府에서는 일본의 교활한 내정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閔妃를 중심으로 그 一族이 排日親露의인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러시아公使 웨베르(Waeber)는 李完用·李範晉으로 하여금 親日勢力을 축출하게 하고 親露內閣을 성립시켰다. 이 당시 親露派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朴泳孝등은 高宗의 廢位까지 음모했다가 발각되어 일본으로 망명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일본의 불만을 고조시켜 일본으

47) 韓祐助, “東學軍에 대한 日人の 幫助說檢討”, 『東方學志』 第8輯(서울, 延世大東方學研究所, 1967), pp. 97-118.

48)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 上卷, pp. 456-489.

49) 陸奧宗光, 『蹇蹇錄』(東京, 岩波書店, 1938), pp. 199-300 참조.

로서는 비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淸日戰爭이라는 험겨운 시련을 겪어 오처럼 얻은 대륙진출의 꿈은 무산되고 遼東半島까지 返還해야 했으며, 韓國에 대한 優先權조차 러시아에 機先을 占有당한 일본은 朝鮮내의 일본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 公使 井上馨을 소환하고 대신 武人 三浦梧樓를 파견, 세력 회복에 전력을 기울였다. 三浦는 親露派인 閔氏一派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閔妃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흥계를 품고 당시 軍部大臣인 趙義淵과 짜고 또 은퇴해 閔妃와 불화중인 大院君을 총동하여 日本陸軍 1個大隊와 日本浪人들을 지휘하여 景福宮에 亂入·占據하여 1895년 10월 7일 그들 친로파의 총수로 지목했던 閔妃를 무참히 弑害하였다.⁵⁰⁾

결국 淸日戰爭의 승리는 일본으로 하여금 韓半島와 大陸侵略의 야욕에 불을 질렀고, 이에 뒤따른 政策의 적극성은 不凍港의 획득을 위해서 南下를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 세력과 대립되어 새로운 국제적 대결의 양상을 露呈하게 되었다.

한편, 三國干涉에 의하여 그해 5월 遼東半島가 환부되자 內田良平은 對露報復의 결의를 갖고 平岡浩太郎으로부터 財政的 支援을 받아 그해 8월에 그는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 건너가 청년을 駐在시켜 러시아 사정의 연구를 담당시키고, 東京에서는 玄洋社 직계의 國粹主義團體로서 1901년 2월에 ‘黑龍會’를 창립하여 러시아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발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內田은 그 동안 滿洲를 시찰하고 1897년 8월에는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단신 시베리아(Siberia)를 횡단하여 1898년 3월에 페테르스부르크(Petersburg)에 도착하여 당시 極東制覇의 계획을 세운 러시아가 시베리아鐵道の 건설을 서둘러있는 상황과 상세한 러시아의 國情을 파악하여, 그해 7월에 福岡에 돌아왔다.

1901년 4월 黑龍會는 일본에서는 가장 정확한 지도라고 자처하였던 《最新滿洲圖》를 발행한 데에 이어 5월에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침략상과 滿洲, 韓國, 시베리아의 상태를 상밀정확하게 나타낸 《露國東方經營部面全圖》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內外의 反響이 컸으며, 이 지도의 출판을 위하여 內田은 外務省과 陸軍省으로부터 2,000圓의 보조금을 받았다.⁵¹⁾ 또한 內田은 그 調査報告를 1901년 9월에 《露西亞亡國論》이란 저서로 출판하여, 對露主戰論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主戰論을 위험시하고 있기 때문에 곧 發賣禁止되었다. 黑龍會에서는 정부의 발매금지에 항의를 하고 다시 교섭한 결과 그 改訂版《露西亞論》이 출판되었다. 이 《露西亞論》중에는 특히 당시 정확한 러시아의 정치·외교·군사·경제·교육·사회 등 문제에 대한 國力分析과 함께 후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러시아革命을 예언한

50) 閔妃弑害事件 관계자는 駐韓日本公使 三浦梧樓의 주도하에 玄洋社의 月成光이나 熊本の 紫冥會의 연고자가 많으며, 天佑俠의 一員이며 뒤에 日帝가 韓國을 강제로 併呑할 때의 중심 인물의 한 사람인 武田範之 등도 참가하고 있다.

51)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569-585, p. 680; 黑龍會編, “黑龍會三十年事歷”, 「韓日合邦秘史」, 上卷 附錄(東京, 原書房, 1966), pp. 5-7; 前掲書, 「國士內田良平傳」, pp. 247-250; 前掲書, 「日本帝國主義의 한 研究」, p. 88, 註 21) 참조.

저서로서 주목되었다.⁵²⁾ 內田의 《露西亞論》이 그 당시 일본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논거는 특히 군부의 강경론자들과 보수파·국수주의·파시즘 등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이 정계와 군부에 널리 읽혀졌고,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간행된 3년후 露日戰爭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의 戰略構想上的 실전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⁵³⁾

또한 露·日간의 대립의 격화, 무력충돌이라는 급박한 國際情勢下에서 1900년에 ‘中國保全과 韓國의 扶掖’을 목적으로 ‘國民同盟會’가 近衛篤磨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는데, 그 중에 玄洋社의 平岡浩太郎·頭山滿도 참가하고 있었다. 1901년에는 앞서 본 黑龍會가 창립되었고, 1902년에는 內田이 神鞭知常·杉山茂丸·吉倉汪聖·平山周·八代六郎 등과 함께 ‘日露協會’란 민간단체를 만드는 일에도 나섰다. 1903년 頭山滿은 平岡浩太郎·神鞭知常·佐佐友房 등과 함께 ‘對露同志會’(1903년 7월에 對外硬同志會를 결성하고, 8월 9일에 對露同志會로 개칭)를 조직하고 여기에 內田도 가입하고 있었다. 1908년에는 田中弘之(舍身)의 주창으로 頭山滿·三浦梧樓·佐佐木安五郎·美和作次郎 등이 浪人會라는 團體까지 결성하게 되었다.⁵⁴⁾ 또 한편 이 同志會와 병행해서 1903년 6월에 對露主戰論을 주창한 七博士建白事件⁵⁵⁾의 한사람인 寺尾亨도 玄洋社 계통이었다. 이와 같이 이른바 國權論者들은 國民同盟의 勢力을 형성하는데 이르고 있으며, 玄洋社도 다른 여러 단체, 즉 黑龍會나 熊本國權黨 등 여러 단체와 연합을 하고, 玄洋社는 그들 정치적 압력단체와 함께 對露強硬外交의 主張과 추진 등 현저한 활동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露日戰爭을 재촉하였다.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玄洋社의 安永東之助가 계획을 세워 黑龍會의 內田良平, 末永節에 상의하여 滿洲의 馬賊을 결집하여 만주에서 전투중인 일본 正規軍을 돕기 위한 義勇軍 조직을 추진하였다.⁵⁶⁾ 이 계획은 頭山滿이 外務省政務局長 山座圓次郎을 거쳐 山座는 참모본부의 福島安正 少將을 설득하였으며, 福島는 陸軍參謀次長 兒玉源太郎 參謀總長 山縣有朋의 승낙을 얻어 玄洋社와 黑龍會의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玄洋社 周圍의 行動團體로서 特別任務隊 ‘滿洲義軍’을 편성하여 鴨綠江 방면의 遊擊戰을 담당시키기도 하였다. 義軍의 실질적인 조직과 지휘는 특수 임무반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陸軍步兵 花田仲之助 中佐가 맡았다. 花田은 荒尾精, 根津一과 士官學校 때부터 뜻을 같이 한 자로 시베리

52) 前掲書, 「東亞先覺志記傳」上卷, pp. 681-682; 前掲書, 「黑龍會三十年事歷」, 「韓日合邦秘史」上卷 附錄, p. 8.

53) 葦津珍彦, 「アジア主義と頭山滿」(東京, 日本敎文社, 1973), pp. 80-81에 의하면 福岡 출신이며 玄洋社의 杉山茂丸과는 竹馬之友이고, 內田良平과도 친교관계가 있었던 陸軍參謀 明石元二郎은 유럽에 망명 중에 있던 러시아 革命家와 연락하여 활동하고, 그 援助工作(주로 資金제공)을 활발히 추진하였는데, 당시 明石은 內田의 「露西亞論」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54)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 686, pp. 697-725; 前掲書, 「玄洋社社史」, pp. 502-539.

55) 東京帝國大學教授 戶水寬人·富井政章·金井延·寺尾亨·高橋作衛·小野塚喜平次, 學習院敎授 中村進午 등 7博士.

56)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 816; 前掲書, 「玄洋社社史」, pp. 550-552.

아 北滿에서의 임무 경험도 많아 義軍 지휘관으로서는 적임자이었다.⁵⁷⁾ 玄洋社員은 安永을 비롯하여 金子克己·福島熊次郎·紫田麟次郎·小野鴻之助·眞藤愼太郎·萱野長知·吉田庚·河村武道·横田虎之助·藤井種太郎·樋口滿·本田一郎 등 13명이며 모두 通譯이었고, 花田이 인선한 옛 부하의 豫備役軍人, 軍事語學專門家 약 20명, 雇員등으로 편성된 총인원이 55명이었다.⁵⁸⁾ 그들은 1904년 5월 28일 門司를 출발하여 6월 1일 安東縣 小流龍岩浦의 戰線에 상륙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상륙과 동시에 滿洲義軍의 편성과 그 훈련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6월 21일 鄭家堡子에서 정식 발대식을 갖게 됨으로써 이른 滿洲義軍이라는 의용군 단체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만주의 土豪를 초집하여 수천명의 軍團을 조직하였다.

러시아軍에서도 馬賊으로 조직된 遊擊部隊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특히 마토리토푸 지휘하의 부대는 대조적으로 우수한 병기를 갖추고 있었으나, 러시아軍의 유격부대 조직은 義軍 만큼 치밀하지도 못하고 통제에도 결점이 많았다. 義軍이 취한 지방민과 연고관계가 깊은 土豪를 선정하여 부대를 편성한 방법은 일반 지방민의 불안을 없애고 오히려 지방민과의 신뢰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협력을 얻기가 쉬웠다. 義軍의 임무는 奇襲·後方攪亂 등 유격 활동과 함께 正規軍을 후원하는 食糧·車馬의 징발, 道露網의 정찰, 敵情偵察, 軍의 嚮導 등이었기 때문에 지방민과의 좋은 신뢰관계를 얻은 그 자체가 이미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7월 22일 義軍은 城廠을 점거한 마토리토푸 휘하의 우세한 부대를 기습해서 遺走시켰다. 이 一戰에서 義軍의 전투 능력은 지방주민에게 인정된 것이다.

義軍은 1904년 여름 이래 대소 수십회의 전투를 경험했으나 花田中佐의 지휘는 탁월하여 싸울 때마다 奇勝했고 義軍의 피해는 적었다. 1905년 2월에 義軍은 獨力으로 老城, 懷仁, 通化방면의 러시아군 7~8,000명의 측면을 공격하고, 3월에는 通化, 新民堡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5월 義軍휘하의 약 300명의 대원으로 吉林 방면의 적세력하에 잠입하여 偵察에 종사하였으며, 적의 兵站部를 불태워 버렸고, 電線을 절단하여 吉林·浦潮간의 통신을 단절시켰다.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행동은 浦潮방면의 러시아군에게 위협을 주어 伊通海龍線에 배치된 병력을 나누어 갑자기 吉林에 보낼 정도이었다. 福島安正 少將은 이 義軍의 凱旋을 “3百의 寡兵을 가지고 약 3萬의 敵을 움직인 예는 많지 않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滿洲義軍은 露·日의 전화가 끝나자 그 해 10월 27일 通化에서 解散式을 거행하고, 11월 3일 戰歿者祭典을 올리고 귀국하였다.⁵⁹⁾

이와 같은 여세를 몰아 그들은 露日戰爭 이후 1910년 日帝에 의하여 韓國의 國權이 강제로 褫탈될 때를 즈음해서 內田良平을 비롯하여 玄洋社系의 이른바 國權論者인 佐瀨熊鐵·神

57)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321-335, pp. 816-817, pp. 819-820, 그리고 前掲書, 「玄洋社社史」, p. 552에서는 參報本部는 頭山滿과 內田良平에게 滿洲義軍의 조직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58)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817-822.

59) 前掲書, 「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 pp. 882-836; 渡邊龍策, 「馬賊」(東京, 中央公論社, 1964), pp. 34-38; 前掲書, 「玄洋社社史」, pp. 552-557.

鞭知常·神谷卓男·望月龍太郎·峰岸繁太郎·武田範之·杉山茂丸 등은 日帝의 계략적인 흥계에 의한 被奪과 그 조종하에 앞잡이던 一進會의 反民族的 행위의 망동에 그들의 弄奸이 개재하여 그 背後를 조종하여 크게 암약하였던 것이다.⁶⁰⁾ 이리하여 그들의 侵略을 위한 行跡의 目標가 玄海灘을 건너서 韓國侵略을 標的으로 한 玄洋社의 단계에서 黑龍江 연안의 滿蒙을 표적의 대상으로 하는 黑龍會의 단계로 확대하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들은 集團은 日帝의 軍部 파시스트(facist) 지도자와 한층 긴밀하고 공공연하게 제휴하여 그들은 日帝의 敗北 후에 올 스스로의 멸망에 기여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⁶¹⁾

IV. 結 論

이상에서 日本의 韓國侵略이나 大陸侵略의 策動이 日帝當局이나 軍部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나 한편 그들 國家機關 이외 日帝가 對外侵略政策에서 표방한 각종 이데올로기의 기반적 論理를 내걸고 頭山滿·內田良平 등 이른바 大陸浪人이라고 불리는 集團인 國粹主義團體가 이에 參加하였다. 그들은 玄洋社를 비롯한 國民同盟會, 黑龍會, 日露協會, 對露同志會, 浪人會라는 團體를 결성하여 일제의 對外侵略의 先頭에서 冒險의인 尖兵의 役割을 하면서, 일본 國民들에게 對外侵略精神을 선동하였던 這問의 侵略行跡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開港 이후 약 半世紀 동안에 韓國은 列強의 경쟁적 進出 및 侵略과 이에 대한 韓國國民의 抗爭이란 對決過程에서 日帝는 시종 積極的이며, 나아가서 列強을 驅逐하고 韓國을 強占하였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일제에 의한 國權被奪過程과 관련된 諸條約의 成立이 韓國을 侵略하는데 合法性을 띠었다고 妄言하는⁶²⁾ 예도 있었고, 또한 Hilary, Conroy 역시 近代 日本의 對韓植民政策이 “Was not aggressive”라고 주장함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壬辰倭亂에 豊臣秀吉의 倭賊이 대거 入寇하였던 사실까지도 종래의 世界學者가 공통으로 사용하여 온 用語 “Hideyoshi Invasion” 대신에 “Demonstrate”⁶³⁾라고 하여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던 만큼 악랄한 일제의 對韓侵略은 결코 尋常看過할 수 없다. 이것은 일제의 對韓侵略을 교묘하게 合理化하려는 侵略者들의 상투적 用語에 불과한 것이다.⁶⁴⁾

60) 拙著, “一進會의 背後關係” 《韓末社會團體史論攷》(螢雲出版社, 大邱, 1972), p. 93.

61) 木下半治, 《日本國家主義運動史》I·II (福村出版社, 東京, 1971) 참조.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日帝가 敗戰한 후에 “The Black Dragon Society, (黑龍會의 英譯名)는 美國占領軍 당국의 더욱 예리한 추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서도 這問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62) 典型的 日本 御用史家인 青柳南冥, 《李朝史大全》, p. 943(朝鮮研究會, 서울, 1922)에는 「……併合案에 關하여 數次의 交渉을 重하고 兩國政府의 意見이 一致함으로써 併合……」이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3) 이틀데먼 歐美語로 쓰여진 日本의 韓國侵略史의 대표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Hilary Conroy,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9-1910: A Study of Realism and Id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Univ. of pennsylvania press, 1960)의 기본적인 主張이기도 하며(同書, p. 7), 入江昭, 「日本の外交」(東京, 中央公論社, 1966) 또한 이 主旨인 明治 日本 「政府의 現實主義」와 「民間의 理想主義」라는 二元論에 따라 日本의 對韓外交를 分析하고 있다.

近者에는 美日安保體制를 기반으로한 日本 軍國主義의 復活의 징후는 이데올로기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形態로서 論爭을 일으키고 있다. 그 集中的 표현은 戰前에 있어서의 軍國主義의 歷史觀을 재평가하고 부활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논조 가운데서 보여진다. 특히 軍國主義의 歷史觀의 부활은 日本 내셔널리즘論을 軸으로 하여 그 對外的 侵略의 發揚으로서 나타난 征韓論, 아시아主義 및 大東亞共榮圈思想을 肯定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하는 논조로 되어 나타났다.⁶⁵⁾ 오늘날 戰前史觀의 肯定的 再評價의 풍조가 日帝의 韓國侵略過程에서 內田良平이 이른바 아시아主義의 基수로, 李容九와 같은 우리가 그 連帶의, 또 獨立 志士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데에서 軍國主義思想 부활의 템포가 빠름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조와 그 추종자들의 侵略的 이데올로기 재평가의 觀點이, 1982년 文部省의 日本 歷史教科書 歪曲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제관점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주목할만하다.⁶⁶⁾

이와 같은 軍國主義의 帝國時代의 韓國侵略과 統治에 대해서 日本의 當局者나 指導層 主張과 態度에는 根本적으로 문제시 되어야 할 點이 적지않은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반성을 促求하는 立場에서 본 새로운 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64) 韓·日 兩國의 國交正常化를 위한 第3次 韓·日會談(1953년 10월 6일~10월 21일)때 日本 代表 久保田貫一郎의 妄言이나 더우기 1963년 日本學者 田中直吉교수가 高麗大學校의 招請으로 來韓, 學術講演에서 日本의 對韓植民政策이 「侵略」이라기 보다 오히려 「韓國 近代化에 貢獻하였다」는 要旨의 發言이 한때 우리 學園社會에서까지 物議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는 軍國主義의 帝國主義時代의 韓國의 侵略과 統治에 대하여 일본측 爲政當局者나 一般輿論 指導層이 한결 같이 이것을 「歷史的 必然」視하고, 또한 法的으로나 道義的 면에서 合法視, 妥當視하는 主張과 態度는 這問의 사정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公報部, 「韓·日會談과 우리의 立場」(서울, 大韓民國公報部, 1964); 李瑄根, “韓·日關係의 歷史的 回顧”, 「國際政治論叢」第2輯, p.15 (國際政治學會, 서울, 1964); 閔丙岐, “韓·日關係의 問題點”, 「國際政治論叢」第2輯, p.7 및 同書, p.124 「韓·日交涉年表」.

65) 이른바 아시아主義를 連帶의 思想으로 평가하고 있는 論者들에 竹內好, “アジア主義の展望”, (『現代日本思想大系』第9卷 所收, (東京, 筑摩書房, 1963); 判澤弘, “東亞共榮圈의 思想—內田良平を中心—”, 『思想の科學』(東京, 1963) 등이 있고, 그것은 林房雄에 의해 「大東亞戰爭肯定論」(東京, 番町書房, 1968)으로 발전하고 있다.

66) 歷史教育研究會, “日本歷史教育特輯” 『歷史教育』第34輯, (서울, 1983)에 이러한 縣案問題의 발생 배경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기초적인 情報의 제공을 위하여 8편의 論文을 수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歷史教育의 本質的인 문제를 비롯하여 日本 歷史教育의 發展과 現況 및 그들의 韓國에 대한 理解를 세계사적 觀點에서 照明하는 데 두었다.